

補助形容詞 ‘-고 싶-’ 구성의 統辭的, 意味的 特性

金天學

(서울市立大 意思疏通教室 客員教授)

要約 및 抄錄

김천학, 2020, 보조형용사 ‘-고 싶-’ 구성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 어문연구, 186 : 31~53 본고는 보조형용사 ‘-고 싶-’ 구성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 싶-’ 구성은 ‘-고’와 ‘싶-’ 사이에 보조사는 결합 가능하지만, 격조사는 결합하기 어려우므로 보조용언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영어의 ‘want’처럼 ‘희망’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언어 유형론적으로 제한된 보절 방책을 갖는데 한국어에서 ‘-고 싶-’은 보조용언 구성으로 표현되고, 주로 화자가 주어와 일치할 때 화자의 ‘희망’을 표현하게 된다. ‘-고 싶-’은 ‘보다’와 같은 일부 타동사와 결합할 때 두 번째 논항의 조사 ‘을/를’이 조사 ‘이/가’로 자연스럽게 교체될 수 있다. ‘NP2이’가 사용되면 ‘-고 싶-’ 구성은 주어-목적어가 중화되어 ‘NP2이’는 주어성을 잃고 ‘중립적 해석’을 나타내게 된다. ‘-고 싶-’ 구성의 ‘NP2이’가 주어성이 없는 것은 이것이 문장 안에서 통사적 주축(syntactic pivot)이 될 수 없음을 통해 입증된다. 한편, ‘-고 싶-’ 구성의 ‘NP2’는 조사 ‘이/가’가 결합되기 때문에 관형절 구성에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중의적으로 해석된 피행위주는 다시 행위주와의 관계와 화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다중 해석이 가능해진다.

※核心語: ‘-고 싶-’, 補助形容詞, 行爲主, 被行爲主, 補節 方策, 中立的 解釋

I. 序論

本稿는 補助用言 ‘-고 싶-’ 구성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 싶-’은 보조형용사이다. 補助用言의 대다수는 보조동사이고 보조형용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고영근·구본관(2008: 104)

에서 제시한 補助形容詞의 분류에 따르면, 보조형용사 중 연결어미 구성으로 본용언에 직접 결합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어 있-’, ‘-지 않/못-’, ‘-고 싶-’이 전부이다.¹⁾ 이 중 ‘-어 있-’은 주로 自動詞와만 결합하여 상태 지속(결과상)의 의미를 나타내며²⁾, ‘-지 않/못-’은 形容詞와만 결합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³⁾ 반면, ‘-고 싶-’은 自動詞와 他動詞에 모두 결합되는 점에서 ‘-어 있-’이나 ‘-지 않/못-’과 구분된다.⁴⁾

補助形容詞는 문장을 상태 의미로 만든다. 상태 의미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 의미는 본래의 어휘 의미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상태 변화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는 형용사가 해당되며, 후자에는 ‘-어 있-’이 대표적이다. 補助形容詞 중 ‘-어 있-’은 동작의 완료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 상태를 나타내므로 상태 변화를 표현하게 된다.⁵⁾ 반면, ‘-지 않/못-’은 형용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상태 변화 의미보다 본래의 상태 의미가 낫다고 할 수 있다. ‘-고 싶-’은 행위주 자동사나 타동사에 결합하여 ‘희망’이나 ‘바람’과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본래적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다.⁶⁾ 그렇다고 사태에 대한 ‘변화된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도 없다. 補助形容詞 ‘-고 싶-’으로 표현되는 의미는 양태적 의미와 관련되므로 여타의

-
- 1) ‘-는가 보다’, ‘-는가 싶다’, ‘-기는 하다’ 등도 보조형용사로 분류되지만, 이들은 연결어미와 결합하지 않는다.
 - 2) 물론 ‘-어 있-’은 몇몇 타동사와 결합이 가능한데, 이때의 타동사는 비록 조사 ‘-을’이 붙을 수 있지만 전형적인 타동사가 아닌 추론된 타동사로 주어가 변화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천학(2018ㄴ: 91)에서 논의된 바 있다.
 - 3) ‘-지 않/못-’이 동사와 결합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면 보조동사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천학(2019ㄴ: 138)을 참조할 수 있다.
 - 4) 최현배(1961: 526)에서는 도움 그림씨(補助形容詞)의 갈래를 제시하며, ‘-지 않/못-’은 으뜸 그림씨(主形容詞)를 돕기에만 쓰이는 것으로, ‘-고 싶-’은 으뜸 움직씨(主動詞)를 돕기에만 쓰이는 것으로, 그리고 ‘-어 있-’은 으뜸 움직씨와 으뜸 그림씨에 두루 쓰이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어 있-’은 본용언이 형용사일 경우 그 결합이 제한되는 반면, ‘-고 싶-’은 일부 형용사 및 ‘이다’와 결합이 가능하다.
 - 5) ‘-어 있-’의 결합은 자동사에 국한되며, 자세동사를 비롯하여 일부 제한된 타동사의 결과 상태는 ‘-고 있-’으로 표현될 수 있다. ‘-어 있-’의 결합 양상과 상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천학(2018ㄴ: 198)을 참조할 수 있다.
 - 6) 최현배(1991: 512)에서 보조형용사 ‘싶다’에 대해 ‘-고 싶다’는 ‘希望’, ‘-은가 싶다’는 ‘推測’의 의미를 지닌다고 한 이후에 대다수의 논의에서 ‘-고 싶다’는 ‘희망’의 의미를 받아들여 적용하게 되었다.

상태 의미와는 구분되는 성질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 싶-’은 ‘보다’와 같은 일부 他動詞와 결합할 때 두 번째 논항의 조사 ‘을/를’이 조사 ‘이/가’로 자연스럽게 교체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고 싶-’ 구성은 표면적으로 조사 ‘이/가’가 重出되는 형식이 되어 관형절을 내포하면 그 의미가 重義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本稿의 2장에서는 補助形容詞 ‘-고 싶-’이 갖는 구성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本用言의 유형에 따른 ‘-고 싶-’ 구성의 결합 양상을 조사한 후, 이를 통해 ‘NP2을’이 ‘NP2이’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4장에서는 ‘-고 싶-’ 구성에서 重義的 解釋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II. ‘-고 싶-’의 構成的 特徵

‘-고 싶-’ 구성을 이루는 ‘싶다’는 本用言으로 쓰이지 못하고 오직 補助用言으로만 쓰일 수 있다.

(1) 가. 어릴 적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나. 오늘이 자네 생일인가 싶어서 선물을 샀네.

다. 시험에 떨어질까 싶어서 조마조마하였다.

라. 그를 좀 보았으면 싶었지만 좀처럼 볼 수가 없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1가)의 ‘-고 싶-’ 구성, (1나)의 ‘은가 싶-’ 구성, (1다)의 ‘-을까 싶-’ 구성, (1라)의 ‘-었으면 싶-’ 구성 등을 補助形容詞 ‘싶다’의 용례로 소개하고 있다.⁷⁾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참조하면, (1가)는 ‘욕구나 바람’, (1나)는 ‘앞말이 뜻하는 내용을 생각하는 마음’, (1다)는

7) 성광수(1993: 11)에서는 ‘싶다’ 구문에 결합하는 선행 구성에 따라 ‘-고 싶-’, ‘-는가 싶-’, ‘-을 듯싶-’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은 선행 구성의 시제 결합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듯싶다’, ‘성싶다’는 별도의 표제항으로 다루고 있다.

‘걱정이나 두려워하는 마음’, (1라)는 ‘막연한 바람’ 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補助用言 ‘싶다’와 결합하는 선행 구성에 차이가 있고, 선행 구성의 차이는 ‘싶다’ 구성의 의미 차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싶다’는 좀처럼 本用言으로는 쓰일 수 없고 오직 補助用言으로만 쓰일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고 싶-’ 구성의 ‘싶다’는 최현배(1961)이나 고영근, 구본관(2008) 등에서 그 지위를 補助用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어학의 선행 연구에서는 ‘-고 싶-’을 補節 構成으로 다룬 논의도 적지 않다.

(2) 나는 밥을 먹고{도/만/는} 싶다.

(3) [나는 [내가 도시에서 살고]NP 싶다.]s

성낙수(1987: 242)에서는 (2)처럼 ‘-고 싶-’의 ‘-고’ 뒤에 助詞가 결합될 수 있으므로, 조사가 결합된 ‘-고’는 名詞句로 보았다. 성낙수(1987: 242)은 손호민(1973: 240)에서도 (3)의 구조를 통해 ‘-고 싶-’ 구성을 내포절을 가진 補節 構成으로 보았다고 하였다.⁸⁾ 차현실(1984: 319) 역시 ‘-고 싶-’의 ‘싶다’를 非完形補節을 취하는 主動詞로 판단하였다.⁹⁾ 이들 논의에서 ‘-고 싶-’을 補節 構成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고’ 뒤에 조사가 결합될 수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사의 결합 여부로 절의 지위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 논의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때 조사는 補助詞가 아닌 格助詞의 결합 여부가 주된 판단 근거로 적용된다.

(4) ㄱ. 나는 그를 추천하지(를) 않았다.

8) 손호민(1973: 240)이나 Sohn(2001: 302)에서는 보조용언 구성을 보절(complement clause)로 보고, 내포절(embedded clauses)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 Dixon(2010: 128)을 적용하면, 보절은 서술어의 논항을 채우는 절 유형을 일컫는다. 보조용언은 본용언을 필요로 하지만 논항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김천학(2019: 135)을 참조할 수 있다.

9) 차현실(1984: 319)에서는 ‘싶다’의 선행어로 오는 ‘-는가 싶-’과 ‘-을 듯싶-’에 대해 ‘-는가’는 완형보절, ‘-을 듯’은 명사구보절로 판단하였다.

ㄴ. 하늘이 어제처럼 맑지(가) 않다.

김천학(2019ㄴ: 136)에서는 (4)와 같은 장형부정 구성은 조사 ‘이/가’나 ‘을/를’이 출현하지 않으면 補助用言 구성에 가깝고, 조사 ‘이/가’나 ‘을/를’이 출현하면 補節에 가깝다고 하였다.¹⁰⁾ 선행 연구의 논의 결과처럼 ‘-고 싶-’의 ‘-고’ 뒤에는 조사가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결합 가능한 조사는 주로 ‘도, 만, 는’ 등의 보조사일 뿐, ‘을/를’ 등의 격조사가 결합되는 용례는 말뭉치에서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¹¹⁾ 이익섭, 채완(2000: 389)에 따르면, 보조용언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본용언의 의미를 보완만 해 주기 때문에 내포절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를 적용하면, ‘-고 싶-’ 구성은 內包節 構成보다 補助用言 構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 연구에서 ‘-고 싶-’ 구성을 補節 構成으로 판단한 이유는 이 구성이 보절의 속성과 상통하는 면이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Dixon & Aikhenvald(2006: 9)에서는 ‘want, hope, intend’ 등과 같은 ‘희망’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그 補節 方策(complementation strategy)에서 언어 유형론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띤다고 하였다.¹²⁾

(5) ㄱ. John carried the box.

ㄴ. I know [that Madrid is the capital of Spain.]

ㄷ. Mary wants [to go first].

10) 유현경(2018: 57) 역시 ‘청자의 입장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의 {는가}는 ‘생각하다’의 목적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명사절 상당 구성’이 되는 반면, ‘차에 올라타는가 싶더니 그대로 가버린다.’의 {는가}는 뒤에 격조사 결합이 불가능하므로 ‘명사절 상당 구성’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11) 성낙수(1987: 242)에서는 ‘나는 밥을 먹고[를] 싶다’를 제시하고 있지만 ‘-고 싶-’ 사이에 ‘를’이 결합되는 용례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12) Dixon & Aikhenvald(2006: 33)에서 제시한 보절 방책(complementation strategy)은 어떤 동사가 보절(complement clause)을 취할 경우 그 선택이 주절 술어와 보절 논항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보절 방책으로는 동사 연속 구성(serial verb construction strategy), 관계절(relative clause strategy), 명사화(nominalization strategy), 접속(linked clause strategy) 등의 방법이 있다. 보조용언 구성은 동사 연속 구성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한국어에서 보절 방책에 따른 보절 구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천학(2019ㄴ: 135)을 참조할 수 있다.

Dixon & Aikhenvald(2006: 9)에서는 敍述語가 어떠한 論項을 취하는가에 따라 동사의 유형을 구분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서술어는 (5ㄱ)이나 (5ㄴ)처럼 그 논항으로 명사구(NP) 혹은 명사절(Clause)을 취한다. 그러나 (5ㄷ)에서 ‘want’는 그 논항으로 명사구(NP)를 취하기 어렵고 소위 ‘to-부정사’를 취하게 된다. Dixon & Aikhenvald(2006: 9)에서는 이들을 분류하여 (5ㄱ)이나 (5ㄴ)의 유형은 제1부류(Primary types), (5ㄷ)의 유형은 제2부류(Secondary types)로 구분하였다. 중요한 것은 제2부류에 해당되는 유형은 언어 유형론적으로 동사의 연결 형식을 취하며, 주로 접사나 한정사 등에 의해 표현된다는 것이다.¹³⁾ 한편, 제2부류의 유형 중 ‘want’, ‘hope’ 등은 주절과 보절이 서로 다른 主語로 표현될 수 있다.¹⁴⁾

(6) She began writing the letter.

(7) ㄱ. I want to go first.

ㄴ. I want Mary to go first.

(6)의 ‘began’은 주절과 보절이 동일 주어일 때만 성립하는 반면, (7ㄱ)의 ‘want’는 주절과 보절의 주어가 같을 때뿐만 아니라, (7ㄴ)처럼 주절과 보절의 주어가 달라도 성립될 수 있다. Dixon & Aikhenvald(2006: 13)에서 소개한 主節과 補節의 동일 주어 여부는 국어학의 기존 연구에서도 ‘-고 싶.’ 구성의 지위 판단에 대한 준거로 적용된 바 있다.

(8) ㄱ. 나는 집에 가고 싶다.

ㄴ. [내가 [나{*너, *그}]가 집에 가고] 싶다.]

13) 제2부류(Secondary Types)는 주로 ‘start, finish’와 같은 상적 의미 동사나 ‘can, must’ 등의 양태 의미 동사 그리고 ‘want, hope, intend’ 등과 같은 ‘희망’,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해당된다.

14) Dixon & Aikhenvald(2006: 13)에서는 주절과 보절이 동일 주어인지 여부에 따라 제2부류(Secondary Types)를 둘로 구분한 바 있다. 즉, 제2부류 중 ‘begin’, ‘can’ 등은 A부류에 해당되며 이들은 주절과 보절이 동일 주어로 나타나고, ‘want’, ‘hope’ 등은 B부류로 주절과 보절이 다른 주어로 표현될 수 있다.

성낙수(1987: 243)은 (8ㄱ)을 (8ㄴ)과 같이 분석한 후, ‘-고 싶-’ 구성은 주절의 주어가 ‘싶다’의 주체가 되므로 내포절의 주어와 일치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 싶-’의 의미 ‘바람’(희망)은 심리적인 것으로 말할이(화자)가 주어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상한 문장이 된다고 하였다.¹⁵⁾ 이처럼 話者와 主語의 一致는 ‘-고 싶-’ 구성에서 통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¹⁶⁾ 이처럼 ‘-고 싶-’ 구성은 주로 화자의 희망을 나타내지만 전지적 시점인 경우에는 주어가 3인칭인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

- (9) ㄱ. ?철수는 살고 싶었다.
 ㄴ. 철수는 살고 싶어했다.

차현실(1984: 308)에서는 ‘-고 싶-’은 1인칭 화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행위를 말할 때 쓰이므로 (9ㄱ)은 非文이 되지만¹⁷⁾, 제3자의 심리 변화의 전반 사건을 알고 있는 전지적 시점인 경우에는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¹⁸⁾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통상 (9ㄱ)보다 (9ㄴ)처럼 ‘-어 하-’의 결합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2장의 논의를 정리하면, ‘-고 싶-’ 구성은 ‘-고’와 ‘싶-’ 사이에 ‘도, 만, 는’ 등의 補助詞는 결합 가능하지만, ‘이/가’, ‘을/를’ 등의 格助詞는 결합하기 어려우므로 補助用言 構成으로 볼 수 있다. 영어의 ‘want’처럼 ‘희망’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언어 유형론적으로 제한된 補節 方策을 갖는데 한국어에서 ‘-고 싶-’은 동사가 연속되는 補助用言 構成을 통해 주로 화자가 주어와 일치할 때 화자의 ‘희망’을 표현하게 된다.

15) 차현실(1984: 307)에서도 ‘희망’은 주관적 심리작용이므로 당사자가 아니면 직접 말할 수 없다고 하며, ‘-고 싶-’은 1인칭 화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행위를 말할 때 쓰인다고 하였다.

16)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고 싶-’ 구성의 통사적 주축(syntactic pivot)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17) 변정민(2001: 176) 역시 ‘싶다’의 의미 자질을 [기대성]으로 보고, [기대성]에서 ‘희망’의 의미가 생성된다고 하였다. [기대성]은 ‘화자의 희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8) 차현실(1984: 308)에서는 ‘-고 싶-’이 가능한 3인칭 주어의 유형으로 ‘철수는 살고 싶단다.’ 등도 제시하며, 이들 모두 ‘철수’의 심리상태를 화자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III. ‘-고 싶-’ 구성에서 ‘NP2을’이 ‘NP2이’로 교체되는 현상

‘-고 싶-’ 구성이 보이는 문법 현상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일부 동사에서 ‘NP2을’이 ‘NP2이’로 교체되는 현상일 것이다.¹⁹⁾ 엄정호(2003: 175)에 따르면, 이러한 교체가 가능한 동사는 ‘먹다’를 포함하여 10여 개에 국한되지만, 이들은 의미상 공통점을 한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선행동사의 유형에 따라 ‘-고 싶-’ 구성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NP2을’이 ‘NP2이’로 교체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들에서 어떤 傾向性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인용된 자료는 주로 문학작품 등을 통해 실제로 사용되는 용례를 제시하려 하였다.

1. 自動詞의 ‘-고 싶-’ 구성

1.1 行爲主 自動詞: 조사 변환 구성

일반적으로 自動詞는 1개의 논항을 필요로 하며, 그 논항은 被行爲主(undergoer)가 된다.²⁰⁾ 그러나 자동사 중 行爲主(actor)를 논항으로 갖는 유형이 있으며, 이들은 종종 부가 논항을 필요로 한다. 한국어에서 이동 동사는 행위주를 논항으로 가지며 ‘NP2에서’나 ‘NP2에’처럼 처소(locative)의 의미역을 나타내는 부가 논항을 필요로 한다.²¹⁾ 또한 이들 부가 논항은 ‘NP2’의 조사 변환이 가능하여 ‘NP2에/에서’가 NP2을’로 변환될 수 있다.

(10) ㄱ. 무엇보다도 어서 이 답답한 시골에서 떠나고 싶었다.

ㄱ’. ?무엇보다도 어서 이 답답한 시골이 떠나고 싶었다.

ㄴ. 무슨 무서운 악몽에 붙들린 것 같아서 일각이라도 빨리 T교수의 옆을

19) 엄정호(2003: 170)은 ‘먹고 싶어’가 ‘먹고파’로 되는 등 극도의 음운 축약을 보이는 것도 ‘-고 싶-’ 구성이 보이는 특징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20) Van Valin & LaPolla(1997: 141)를 적용하면, 행위주(actor)와 피행위주(undergoer)는 의미역(semantic macrorole)의 구분이고, 동작주(agent)와 피동작주(patient)는 사태의 참여역(participant roles in states of affair)의 구분이라 할 수 있다.

21) 부가 논항으로 ‘NP2에서’를 요구하는 동사에 ‘뛰다, 걷다, 날다, 떠나다’ 등이 있고, ‘NP2에’를 요구하는 동사에 ‘가다, 숨다, 앉다’ 등이 있다.

떠나고 싶었다.

ㄴ. ?무슨 무서운 악몽에 붙들린 것 같아서 일각이라도 빨리 T교수의 옆이 떠나고 싶었다.

(10ㄱ)의 ‘떠나다’를 비롯하여 ‘날다, 걷다, 달리다’ 등은 ‘NP2에서’를 附加 論項으로 취하며, (10ㄴ)처럼 ‘NP2을’로의 변환이 자연스럽다.²²⁾ 그리고 이러한 조사의 변환은 ‘-고 싶-’ 구성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10ㄱ)처럼 ‘NP2에서’뿐만 아니라 (10ㄴ)처럼 ‘NP2을’도 ‘-고 싶-’과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10ㄱ')와 (10ㄴ')로 제시된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NP2에서’나 ‘NP2을’이 ‘NP2이’로 변환되어 ‘-고 싶-’ 구성에 출현하는 것은 좀처럼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뭉치에서도 그 용례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²³⁾ 다음 (11)의 ‘가다’ 역시 이동동사에 해당되지만 ‘가다’는 ‘NP2에서’가 아니라 ‘NP2에’를 부가 논항으로 취한다.

(11) ㄱ. 그 무렵 학교{에/를} 가고 싶다는 우리의 열망은 대단했었다.

ㄱ'. ?그 무렵 학교가 가고 싶다는 우리의 열망은 대단했었다.

ㄴ. 면회{*에/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사정이 못 돼 안타깝기만 하오

ㄴ'. ?면회가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사정이 못 돼 안타깝기만 하오

‘가다’는 이익섭·채완(2000: 16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NP2을’의 의미 차이에 따라 (11ㄱ)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가는 장소를 나타내고, (11ㄴ)은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차이가 있다. ‘NP2’가 장소를 나타내는 ‘가다’는 (11ㄱ)처럼 ‘NP2에’와 ‘NP2을’이 모두 가능한 반면, ‘NP2’가 행위 자체를 나타내

22) ‘떠나다’ 등의 동사에서 ‘NP2에서’가 ‘NP2을’로 변환되면, ‘NP2에서’는 특정 지점(부분)을 나타내는 반면, ‘NP2을’은 전면(전체)을 나타내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1998), 우형식(1996), 연재훈(1997) 등에서 논의된 바 있고, 이를 종합하여 이들 구성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는 김천학(2019ㄱ: 71)에서 논의된 바 있다.

23) ‘-고 싶-’ 구성에서 ‘NP2이’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화자마다 직관에 따른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최대한 실제 용례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는 (11ㄴ)은 ‘NP2에’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이들은 모두 ‘-고 싶-’과의 결합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가다’의 경우에도 (11ㄱ’)와 (11ㄴ’)에서처럼 ‘NP2을’이 ‘NP2이’로 변환되어 ‘-고 싶-’과 결합하는 것은 좀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말뭉치에서도 그 용례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직관에 의한 판단으로는 장소를 나타내는 (11ㄱ’)의 용례가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11ㄴ’)의 용례보다 ‘NP2이’의 변환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²⁴⁾ 이는 ‘-고 싶-’ 구성에서 ‘NP2이’의 변환과 관련하여 눈 여겨 볼만한 점이다.²⁵⁾ 이에 대해서는 3.2절 他動詞의 ‘-고 싶-’ 구성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1.2 被行爲主 自動詞 및 形容詞 그리고 ‘이다’

自動詞는 본래 논항이 1개이며 被行爲主가 된다. 피행위주는 ‘사물’([-human])인 경우가 많은데, (12)에서처럼 피행위주 자동사가 ‘-고 싶-’ 구성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피행위주가 ‘인간’([+human])이어야 한다. ‘-고 싶-’의 의미가 ‘희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2) ㄱ. 저는 차라리 명청하게 일이나 하며 죽고 싶어요.

ㄴ.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

ㄷ. 그대로 눈을 감은 채 풀 냄새 느긋한 자연 품에 안기고 싶었다.

(12ㄱ)의 ‘죽다’나 (12ㄴ)의 ‘사라지다’는 被行爲主인 ‘話者’의 희망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때의 화자는 피행위주이므로 ‘-고 싶-’으로 표현되는 ‘희망’의 의미는 부정적인 방향의 ‘희망’을 나타내게 된다. 피행위주 자동사에는 피동사도 포함되는데 ‘안기다’와 같은 피동사는 (12ㄷ)처럼 부정적인 방향의 ‘희망’이 아닌 긍정적 방향의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다.

24) 예문에서는 물음표의 개수로 이 차이를 표시하려 하였다.

25) 이은섭(2016: 34)에서는 ‘학교가 가고 싶-’의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고 싶-’ 구성에서 ‘NP2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타동사이거나 자신의 논항을 대상화할 수 있는 비타동사이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NP2이’의 실현은 ‘싶다’의 정태성이 부각되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는 본고의 견해와 상통하는 면이 크다. 그러나 ‘학교가 가고 싶-’의 구성은 실제 용례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성낙수(1987: 240)에서는 ‘-고 싶-’에 앞서는 用言은 동사로 형용사나 ‘이다’는 ‘-고 싶-’과 결합할 수 없다고 하였고, 변정민(2001: 178)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그러나 박한기(2009: 59)에서는 (13ㄱ)의 용례를 통해 ‘이다’와 ‘-고 싶-’의 구성을 제시한 바 있다.

(13) ㄱ. 남자도 때론 여자이고 싶다

- ㄴ. 허공에 붙박인 노란 잠수함이고 싶다고, 차라리 그런 것이고 싶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 ㄷ. 진정성을 가진 하나의 돌올한 존재이고 싶다

(13)에서 보는 것처럼 ‘이다’와 ‘-고 싶-’의 구성은 매우 자연스럽다. 박한기(2009: 59)에서는 (13ㄱ)의 ‘여자이고’에 대해 ‘여자가 되고’ 또는 ‘여자처럼 행동하고’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N이고 싶다’는 ‘N이 되고 싶다’의 의미에 가깝다. 그러나 두 의미가 온전히 동일하지만은 않다. ‘되다’는 ‘變化’의 의미를 함의하지만 ‘이다’는 ‘指定’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²⁶⁾ 그러므로 (13ㄴ)의 ‘노란 잠수함’이나 (13ㄷ)의 ‘존재’와 함께 쓰인 ‘이고 싶다’는 지정된 대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고 그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이고 싶은 ‘희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形容詞는 ‘-고 싶-’ 구성으로 표현되기 어렵다. 형용사의 본유적 상태 의미는 ‘-고 싶-’으로 표현되는 ‘희망’의 의미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용사 중 어떤 형용사는 특이하게 피행위주 자동사처럼 부정적 방향의 ‘희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들은 제한적으로 ‘-고 싶-’ 구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 (14) ㄱ. “선생님은 아프고 싶나요, 건강하고 싶나요?” “당연히 건강하고 싶으니
 까 여기에 왔죠. 아프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ㄴ. 그만 괴롭고 싶어.

26) ‘되다’와 ‘이다’의 의미 차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참조하였다.

고영근, 구분관(2008: 96)에 따르면, (14ㄱ)의 ‘아프다’나 (14ㄴ)의 ‘괴롭다’는 화자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는 主觀性 形容詞로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는 客觀性 形容詞과 구분된다고 하였다.²⁷⁾ 형용사는 ‘-고 싶-’ 구성을 이루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14)에 제시된 ‘아프다’나 ‘괴롭다’ 등은 ‘-고 싶-’ 구성의 용례가 발견된다. (14ㄱ)의 ‘아프고 싶지 않다’는 (14ㄴ)의 ‘괴롭고 싶지 않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용례가 발견된다. 이들 형용사와 ‘-고 싶-’ 구성의 의미는 부정적 방향의 ‘희망’을 나타내므로, 주로 그러한 심리 상태를 희망하지 않는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이게 된다.

2. 他動詞의 ‘-고 싶-’ 구성: ‘NP2을’이 ‘NP2이’로 變換

엄정호(2003: 175)에 따르면, ‘NP2을’이 ‘NP2이’로 변환 가능한 동사들은 모두 他動詞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의미상 공통점을 한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엄정호(2003: 175)에서는 ‘NP2을’이 ‘NP2이’로 변환 가능한 동사로 ‘보다, 듣다, 먹다, 마시다, 피우다, 알다, 묻다, 입다, 신다’ 등을 제시한 바 있다.²⁸⁾ 여기에서는 ‘NP2을’에서 ‘NP2이’로 변환이 가능한 동사들의 용례를 중심으로 이들 구성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15) ㄱ. 내가 뻔한 꼴을 보고 싶었지?

ㄴ. 입 끝으로 잘못했습니다 소리는 하지 않더라도 다만 눈 가장자리에 참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고 싶었다.

(16) ㄱ. 언제든 그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ㄴ. 수고했어. 부모형제랑 애인이 보고 싶었겠지?

27) 유현경(1998: 79)에서는 심리형용사를 대상 심리형용사와 원인 심리형용사로 분류한 바 있다. 전자는 대상에 대한 경험주의 판단을 서술하고, 후자는 어떤 사실이나 일이 원인이 되어 유발된 경험주의 심리 상태를 서술한다고 하였다. 이 분류에 따르면, ‘아프다’나 ‘괴롭다’ 등은 원인 심리형용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인 심리형용사가 모두 ‘-고 싶-’ 구성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8) 이은섭(2016: 32)에서는 엄정호(2003: 174)에서 제시한 용례 이외에도 ‘읽다, 배우다, 쓰다, 볼다’도 추가로 더 확인된다고 하며, 적절한 맥락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거의 대부분의 타동사는 조사 ‘이/가’를 선행 성분으로 둘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엄정호(2003: 175)에서는 ‘NP2을’이 ‘NP2이’로 변환이 가능한 동사들 중에 ‘보다’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그만큼 ‘보다’는 ‘-고 싶-’ 구성에서 ‘NP2이’의 논항 결합이 매우 자연스럽다. ‘보다’는 ‘-고 싶-’ 구성에 (15)처럼 ‘NP2을’이 사용된 것이나 (16)처럼 ‘NP2이’가 사용된 것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보고 싶다’ 구성에서 ‘NP2을’과 ‘NP2이’는 그 의미상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은섭(2016: 34)에서 논의한 바처럼 ‘NP2이’가 실현되면 ‘-고 싶-’ 구성의 靜態性이 부각되는 특징이 있다. 즉, ‘NP2을’보다 ‘NP2이’가 더 靜的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15)에서 ‘NP2을’로 제시된 ‘뻗은 꼴’, ‘미안해하는 표정’과 (16ㄱ)에서 ‘NP2이’로 제시된 ‘그의 얼굴’, ‘부모형제랑 애인’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보고 싶다’ 구성에서 ‘NP2이’는 ‘NP2을’과 비교했을 때 더 구체적인 대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NP2’의 대상이 전형성에서 벗어난 경우에 그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 (17) ㄱ. 그 앞자리의 한복은 분명히 신문이 읽고 싶어서가 아니고 공부하다가 담배가 먹고 싶어 내려왔어도 그 시간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ㄴ. 그런 무의미한 손놀림에서나마 그의 갈등을 읽고 싶었다. {^{??}갈등이 읽고 싶었다.}

‘읽다’나 ‘먹다’의 ‘-고 싶-’ 구성에서는 ‘NP2이’의 용례가 ‘보다’에 비해서는 적게 발견되지만, (17ㄱ)에서 ‘-고 싶-’ 구성에 ‘NP2이’가 사용된 것은 모두 구체적인 대상에 해당된다. 즉, ‘읽고 싶은’ 대상은 ‘신문’이고, ‘먹고 싶은’ 대상은 ‘담배’로 ‘NP2을’에 비해 靜的인 상황이 더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7ㄴ)의 ‘-고 싶-’ 구성에서 ‘NP2을’로 제시된 ‘갈등’은 ‘읽고 싶은’ 구체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에 ‘NP2이’의 交替는 매우 부자연스럽거나 성립하기 어렵게 된다. ‘NP2이’의 사용이 靜的인 狀況을 나타내는 것은 (18)의 ‘알다’에서도 유지된다.

- (18) ㄱ. 나는 그 사람이 어찌하여 죽었는지 어떠한 마음과 혼을 가지고 지내어

왔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나의 동무들로부터 그의 일기만 얻어다 놓
았었다

- ㄴ. 성눌은 웬지 그 의사귀가 가는 방향을 알고 싶어서 가슴을 넘는 풀밭 속
을 허방지방 헤치며 맞은편 언덕까지 쫓아 넘다가 뜻 않았던 인기척 소
리에 문득 발길을 멈추었다.

‘알고 싶다’ 구성에서 ‘NP2이’의 용례는 주로 (18ㄱ)처럼 ‘그것이 알고 싶
다’의 유형으로 쓰인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마치 굳어진 표현처럼 사용되
는 것이다. 반면, ‘NP2을’의 용례는 (18ㄴ)처럼 더 動的 狀況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 싶-’ 구성에서 ‘NP2이’가 ‘NP2을’보다
더 靜的인 狀況을 표현하는 것은 타동사의 여러 용례를 통해 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고 싶-’ 구성에 ‘NP2을’이 ‘NP2이’로 변환되는 것은
전형적인 他動 構成인 경우에 해당되며²⁹⁾, ‘NP2이’의 사용은 더 靜的인 狀
況을 표현하게 된다. 이처럼 ‘-고 싶-’ 구성에서 ‘NP2을’이 ‘NP2이’로 변환
되는 현상은 ‘-고 싶-’이 補助形容詞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³⁰⁾

(19) ㄱ. 나는 후배인 박이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다.

ㄴ. 그 여자는 포로수용소를 탈출하고 싶어하는 포로를 상상한다.

(19)는 ‘-고 싶-’ 뒤에 다시 ‘-어하-’가 결합되어 他動 構成을 만들게 된다.
‘-고 싶-’이 주로 화자의 ‘희망’을 표현한다면, ‘-고 싶어하-’는 3인칭 주어의
‘희망’을 나타내며, 이때 화자는 차현실(1984: 30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
3자의 심리 변화의 전반 사건을 알고 있는 全知的 視點에 놓이게 된다. 결
국, ‘-고 싶-’ 구성은 ‘NP2’가 전형적 대상의 경우 ‘NP2이’를 사용하여 더 靜
的인 狀況에서 화자의 ‘희망’을 나타내고, 화자가 알고 있는 제3자의 ‘희망’

29) Givón(1984: 96)에 따르면, 전형적인 타동사는 동작주 주어(agent subject)와 변화 대상 목적어(patient-of-change object)를 갖는다고 하였다.

30) 그러나 왜 모든 타동 구성에서 ‘NP2을’이 ‘NP2이’로 변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제한된 동사에서 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찾기 힘들다. 이는 동사와 ‘-고 싶-’ 구성의 결합이 갖는 개별적 특성에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을 표현할 때에는 ‘-고 싶어하-’처럼 다시 他動 構成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 심리형용사에서 ‘-어하-’의 결합으로 他動 構成을 나타내는 양상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³¹⁾

IV. ‘-고 싶-’의 統辭-意味의 特性

3장에서는 ‘-고 싶-’ 구성에서 ‘NP2을’이 ‘NP2이’로 交替되는 유형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고 싶-’ 구성에서 ‘NP을’이 ‘NP이’로 교체되는 것은 전형적인 他動 構成인 경우에 해당되며, 그 의미는 靜的인 狀況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20) ㄱ. 언제든 그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ㄴ. 그 앞자리의 한복은 분명히 신문이 읽고 싶어서가 아니고 공부하다가 담배가 먹고 싶어 내려왔어도 그 시간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20)의 예문에서 (20ㄱ)의 ‘얼굴’과 ‘보다’ 그리고 (20ㄴ)의 ‘신문’과 ‘읽다’, ‘담배’와 ‘먹다’는 가장 전형적인 他動 構成의 대상과 서술어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NP을’이 ‘NP이’로 交替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Kuno(1973: 81)는 일본어의 ‘ga’ 역시 주어 및 목적어에 쓰일 수 있으며, ‘ga’가 목적어로 쓰일 때의 述語는 행위(action)가 아니라 상태(state)를 나타낸다고 하였다.³²⁾

31) 엄정호(2003: 191)에서는 ‘-고 싶-’ 구성을 포함한 보조용언 구성이 단문적 특성과 복문적 특성의 이중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하며, 이를 동사 포함의 양상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즉, 보절과 유사한 것은 복문적 특성에 해당되며, 합성동사와 유사한 것은 단문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성기철(2007: 316)에서도 ‘NP2이’가 쓰인 ‘-고 싶-’ 구성의 ‘보고 싶다’는 ‘그립다’와 의미상의 유사성을 지니는 어휘 범주에 든다고 하였다.

32) 한국어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견해를 목정수(20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정수(2005: 155)에서는 [X는 Y가 V]의 구조를 갖는 소유동사나 기술동사(성상형용사)에서 [Y가 V]는 VP로 서술절이 될 수 없으며, [Y가]는 주어가 아닌 비주어 더 정확히는 ‘가형 목적어’가 된다고 하였다.

(21) ㄱ. Boku wa okane ga hosii.

I money want

I want money.

ㄴ. Boku wa Mary ga kowai.

I am-fearful-of.

I am afraid of Mary

Kuno(1973: 82)에서는 ‘ga’가 目的語에 결합되는 서술어의 유형으로 ‘타동사적 형용사, 명사적 형용사, 비의도적 지각동사, 소유 동사’ 등을 제시하였다.³³⁾ (21)은 名詞의 形容詞에 해당되며, NP2에 ‘ga’가 결합되었다.³⁴⁾ Kuno(1973: 84)는 일본어의 ‘ga’가 目的語로 쓰일 때에는 ‘중립적 해석’(neutral description)이 된다고 하였다.³⁵⁾ 한편, Lambrecht(2000: 672)는 Kuno(1973)를 인용하며, 일본어의 ‘ga’가 특수하게 目的語 類型을 나타낼 때에도 쓰일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 ‘ga’는 주어-목적어의 중화(subject-object neutralization)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Lambrecht(2000: 672)에서 언급한 주어-목적어의 중화는 이 성분이 주어성(subjectivity)을 잃은 것에 해당된다.³⁶⁾ 이는 Van Valin & LaPolla(2007)을 적용하면 문장 안에서 統辭的 主軸(syntactic pivot)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2) ㄱ. Susani wants ____i to run in the park.

33) 타동사적 형용사는 ‘zyoozu(잘하다), nigate(못하다)’ 등이 해당되고, 명사적 형용사는 ‘suki(좋아하다), hosii(원하다)’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비의도적 지각동사는 ‘kikoeru(듣다), mieru(보다)’ 등이 해당되며, 소유동사는 ‘aru(있다), iru(있다)’ 등이 해당된다.

34) (21 ㄱ)의 ‘hosii’(ほしい, want)는 한국어의 ‘원하다’나 ‘바라다’에 대응되는데, 한국어의 ‘원하다’나 ‘바라다’가 동사인 것과 달리 일본어의 hosii’(ほしい)는 형용사에 해당된다. 한편, (21 ㄴ)의 ‘kowai’(こわい, fearful)는 한국어 ‘무섭다’에 대응되므로 한국어에서도 형용사에 해당된다. 또한 ‘무섭다’ 역시 ‘NP2’에 조사 ‘이/가’가 결합되는 점에서 유사함이 있다.

35) Kuno(1973: 65)는 총망라적 ‘ga’와 중립기술의 ‘ga’를 구분하였다. Kuno(1973: 65)에서 제시한 총망라적(exhaustive-listing) ‘ga’는 ‘존이 바보다’라고 할 때 ‘논의되는 사람 중 오직 존이 바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6) Lambrecht(2000: 623-6)는 초점을 술어초점, 논항초점, 문장초점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문장초점 유형의 주어 역시 주어성을 잃고 주어-목적어의 중화가 발생한다.

- ㄴ. Susani wants ____i to eat a hamburger.
- ㄷ. Susani wants ____i to be taller.
- ㄹ. *Susani does not want the police to arrest ____i.
- ㅁ. Susani does not want ____i to be arrest by the police.

Van Valin & LaPolla(2007: 252)에 따르면, (22)의 문장들에서 從屬節의 主語는 의미역에 관계없이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것을 ‘統辭的 主軸’(syntactic pivot)이라 하였다. ‘통사적 주축’은 그 구성에서 문법적으로 가장 우세한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된다. 즉, ‘want to’ 구성에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와 일치할 때 종속절의 주어는 의미역에 관계없이 생략이 되지만³⁷⁾, (22ㄷ)처럼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목적어와는 일치해서 쓰일 수 없다. 이러한 ‘통사적 주축’은 주어의 일치를 요구하는 한국어의 ‘-고 싶-’ 구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³⁸⁾

- (23) ㄱ. 영희는 (영희가) 공원에서 뛰고 싶었다.
- ㄴ. 영희는 (영희가) 햄버거(를/가) 먹고 싶었다.
 - ㄷ. 영희는 (영희가) 키가 더 크고 싶었다.
 - ㄹ. *영희는 경찰이 (영희를) 체포하고 싶지 않았다.
 - ㅁ. 영희는 (영희가) 경찰에 체포되고 싶지 않았다.

‘-고 싶-’ 구성에서 本用言의 主語는 의미역에 관계없이 생략이 가능하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3ㄱ)와 (23ㄴ)에서 생략된 주어 ‘영희’는 行爲主(actor)이고, (23ㄷ), (23ㅁ)에서 생략된 주어 ‘영희’는 被行爲主(undergoer)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 싶-’ 구성에서의 주어 생략은 본용언의 주어일 때 발생하지, (23ㄹ)처럼 본용언의 목적어일 때는 문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즉, 의미역에 관계없이 생략은 주어로 쓰일 때 발생하므로 統辭的 中和

37) (22ㄱ)과 (22ㄴ)에서 생략된 주어는 행위주(actor)이고, (22ㄷ)에서 생략된 주어는 피행위주(undergoer)이다.

38)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낙수(1987: 243), 차현실(1984: 308) 등에서는 ‘-고 싶-’ 구성은 주절의 주어가 ‘싶다’의 주체가 되므로 내포절의 주어와 일치한다고 하였다.

(syntactic neutralization)가 발생하게 된다. 통사적 중화는 본용언의 목적어일 때는 발생하지 않고 본용언의 주어일 때만 발생하므로 중화의 결정자(controller)는 주절의 주어인 ‘영화’가 되며, 이것이 곧 統辭的 主軸(syntactic pivot)이 된다고 할 수 있다.³⁹⁾

결국, ‘-고 싶-’ 구성의 통사적 주축은 중화의 결정자인 ‘영화’가 담당하고, 本用言의 주어와 補助用言의 주어가 동일해야 문장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 싶-’ 구성의 ‘NP2이’나 일본어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NP2-ga’는 모두 통사적 주축(syntactic pivot)이 될 수 없으며 주어가 아니다.⁴⁰⁾ 한편, ‘-고 싶-’ 구성의 ‘NP2’에 조사 ‘이/가’가 결합되면 관형절 구성에서 重義的으로 解釋될 여지가 있다.

(24) 방학 동안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교수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매우 많다고 한다.

ㄱ. 교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

ㄴ. 교수님은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24)는 重義的 意味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용례이다. (24)가 중의적 의미로 해석되는 이유는 ‘-고 싶-’ 구성에서 조사 ‘이/가’가 결합된 성분이 行爲主로 해석될 수도 있고 被行爲主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4ㄱ)은 ‘학생’이 행위주가 되고, (24ㄴ)은 ‘교수님’이 행위주가 된다. 그러나 (24)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24ㄱ)처럼 ‘학생’이 행위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24ㄴ)처럼 ‘교수님’이 행위주가 되면 ‘교수님이’ 뒤에 약간의 休止가 필요하다.

39) Van Valin & LaPolla(200: 277)에서는 주어는 문법 체계의 속성(주어-목적어-서술어)을 나타내고, 결정자(controller)와 주축(pivot)은 개별 구성적 특성(construction-specific)이 된다고 하였다. 즉, ‘주어’는 ‘한국어의 주어’(개별언어의 주어)처럼 더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 ‘결정자’나 ‘주축’은 ‘중화의 결정자’처럼 개별 구성적 범위를 나타낸다.

40) 이은섭(2016: 44)에서는 ‘-고 싶-’ 구성의 ‘NP2이’는 ‘-께서’의 호응이나 ‘-사.’의 호응 등을 통해 주어성을 검증한 결과 주어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5) (오랫동안 못 만나서 그런지) 엄마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고 한다.

(25') ㄱ. 친구 자신의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가 많다.

ㄴ. 화자의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가 많다.

(25'') ㄱ. 엄마는 보고 싶은 엄마의 친구가 많았다.

ㄴ. 엄마는 보고 싶은 화자의 친구가 많았다.

(25)는 관형절의 ‘NP’에 조사 ‘이/가’가 결합되어 重義的으로 解釋될 뿐만 아니라 被行爲主가 지시하는 대상에서도 중의성이 드러나 4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용례이다. 우선, (25)는 관형절의 ‘NP’에 조사 ‘이/가’가 결합되므로 中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즉, (25')처럼 ‘보고 싶다’의 행위주는 ‘친구’, 피행위주는 ‘엄마’로 해석될 수도 있고, (25'')처럼 ‘보고 싶다’의 행위주는 ‘엄마’, 피행위주는 ‘친구’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예문 (25')에서 被行爲主인 ‘엄마’는 (25' ㄱ)처럼 ‘친구 자신의 엄마’일 수도 있고, (25' ㄴ)처럼 ‘화자의 엄마’가 될 수도 있다. 물론, (25' ㄱ)처럼 화자보다는 행위주의 엄마일 때가 더 자연스럽다. 한편, 예문 (25'')에서 被行爲主인 ‘친구’는 (25'' ㄱ)처럼 ‘엄마의 친구’일 수도 있고 (25'' ㄴ)처럼 ‘화자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때에도 (25'' ㄱ)처럼 화자보다는 행위주의 친구일 때가 더 자연스럽다.

(25')와 (25'')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重義的으로 解釋되는 것은 모두 被行爲主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 싶-’ 구성의 통사적 주축(syntactic pivot)이 행위주에 놓이기 때문이다. 또한 中의적 해석을 받는 피행위주는 화자와의 관계보다 행위주와의 관계일 때 더 자연스럽게 해석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행위주와 피행위주는 統辭的 關係를 형성하지만, 화자와 피행위주는 談話-話用論的 關係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⁴¹⁾

정리하면, ‘-고 싶-’ 구성의 ‘NP2이’는 주어-목적어가 중화되어 주어성을 잃고 ‘총망라적 해석’이 아닌 ‘中立的 解釋’을 나타내게 된다. ‘-고 싶-’ 구성의 ‘NP2이’가 주어성이 없는 것은 이것이 문장 안에서 統辭的 主軸(syntactic

41) 이런 이유로 Dixon(2012: 200)은 대화 확장에 대한 언급 없이(without referring to the stretch of discourse) 어떤 것이 주축(pivot)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pivot)이 될 수 없음을 통해 입증된다. 한편, ‘-고 싶-’ 구성의 ‘NP’는 조사 ‘이/가’가 결합되기 때문에 관형절 구성에서 重義的으로 解釋될 수 있다. 中義적으로 해석된 被行爲主는 다시 행위주와의 관계와 화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多重 解釋도 가능해진다.

V. 結論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結論에 대신하려 한다. 本稿는 補助用言 ‘-고 싶-’ 구성의 統辭的, 意味的 特性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 싶-은 ‘보다’와 같은 일부 他動詞와 결합할 때 두 번째 논항의 조사 ‘을/를’이 조사 ‘이/가’로 자연스럽게 교체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고 싶-’ 구성은 표면적으로 조사 ‘이/가’가 重出되는 형식이 되어 관형절을 내포하면 그 의미가 重義的으로 해석될 수 있다.

2장에서는 ‘-고 싶-’의 構成的 特徵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 싶-’ 구성은 ‘-고’와 ‘싶-’ 사이에 ‘도, 만, 는’ 등의 補助詞는 결합 가능하지만, ‘이/가’, ‘을/를’ 등의 格助詞는 결합하기 어려우므로 보조용언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영어의 ‘want’처럼 ‘희망’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언어 유형론적으로 제한된 補節 方策을 갖는데 한국어에서 ‘-고 싶-’은 補助用言 構成으로 표현되고, 주로 화자가 주어와 일치할 때 화자의 ‘희망’을 표현하게 된다.

3장에서는 ‘-고 싶-’ 구성에서 ‘NP2을’이 ‘NP2이’로 交替되는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선행동사의 유형을 行爲主 自動詞와 被行爲主 自動詞 그리고 他動詞로 구분하여 ‘-고 싶-’ 구성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고 싶-’ 구성은 타동사의 전형적 목적어 구성에서 ‘NP2이’를 사용하며, ‘NP2이’가 실현되면 ‘NP2을’보다 더 靜的인 意味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고 싶-’ 구성에서 ‘NP2을’이 ‘NP2이’로 變換되는 현상은 ‘-고 싶-’ 구성이 補助形容詞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장은 ‘-고 싶-’의 統辭-意味的 特性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 싶-’ 구성의 ‘NP2이’는 주어-목적어가 중화되어 주어성을 잃고 ‘中立的 解釋’을 나타내

게 된다. ‘-고 싶-’ 구성의 ‘NP2이’가 주어성이 없는 것은 이것이 문장 안에서 統辭的 主軸(syntactic pivot)이 될 수 없음을 통해 입증된다. 한편, ‘-고 싶-’ 구성의 ‘NP2’는 조사 ‘이/가’가 결합되기 때문에 관형절 구성에서는 重義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의적으로 해석된 被行爲主는 다시 행위주와의 관계와 화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多重 解釋도 가능해진다.

<參考文獻>

- 고영근, 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pp.96~104.
- 김천학(2018ㄱ), 「보조용언 ‘-어 있-’과 상에 대한 연구」, <국어학> 86, 국어학회, pp.181~209.
- _____ (2018ㄴ), 「他動詞과 ‘-어 있-’의 結合에 관한 考察」, <語文研究> 46(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81~102.
- _____ (2019ㄱ), 「조사 ‘을’의 부가와 타동성」, <한국어의미학> 63, 한국어의미학회, pp.59~80.
- _____ (2019ㄴ), 「장형부정 구성에 조사 ‘이/가’나 ‘을/를’이 출현하는 현상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 83, 한국어학회, pp.129~153.
- 목정수(2005), 「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41, 한국언어학회, pp.75~99.
- 박한기(2009), 「‘싶-’의 통사구조와 의미」, <언어> 34, 한국언어학회, pp.53~72.
- 변정민(2001), 「‘싶다’의 의미 연구」, <한국어학> 13, 한국어학회, pp.171~193.
- 성광수(1993), 「‘싶다’ 구문의 보문구조와 의미해석」, <한국학연구> 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7~37.
- 성기철(2007), 『한국어 문법 연구』, 글누리, pp.316~317.
- 성낙수(1987), 「이른바 도움그림씨 ‘싶다’의 연구」, <한글> 196, 한글학회, pp.237~250.
- 손호민(1973), 「Coherence in Korean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어학연구> 9-2,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pp.239~251.
- 엄정호(2003), 「‘-고 싶다’ 구문의 격 교체」, <국어학> 41, 국어학회, pp.169~195.

- 연재훈(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1, 한국언어학회, pp.107~132.
- 우형식(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서울: 박이정, pp.131~132.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pp.79~80.
- _____(2018), 『한국어 명사절의 범위에 대한 연구』, <한글> 79-1, 한글학회, pp.37~66.
- 이은섭(2016), 『‘-고 싶다’ 구문의 본용언에 직접 선행하는 ‘이/가’ 조사구의 주어성 검증』, <어문학> 134, 한국어문학회, pp.21~51.
- 이익섭, 채완(2000),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학연사, pp.169~389.
- 임홍빈(1998), 『을/를 조사의 의미와 통사』, 『국어문법의 심층』, 서울: 태학사, pp.605~609.
- 차현실(1984), 『‘싶다’의 의미와 통사』, <언어> 9-2, 한국언어학회, pp.305~326.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pp.512~526.
- Dixon, R.(2010), *Basic Linguistic Theory*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128~129.
- _____(2012), *Basic Linguistic Theory* 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199~200.
- Dixon, R. & Aikhenvald, A.(2006), *Complementation: A Cross-Linguistic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9~33.
- Givón, T.(1984), *Syntax*,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95~96.
- Kuno, S.(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London: The MIT Press, pp.65~85.
- Lambrecht, K.(2000), When subjects behave like objects: an analysis of the merging of S and O in sentence-focus constructions across languages, *Studies in Language* 24:3, pp.611~682.
- Sohn, Ho-Min(2001),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01~302.
- Van Valin, R. and LaPolla, R.(1997),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41~277.

■ ABSTRACT

A Study on the Syntactic and Semantic Function of
the Korean Adjective auxiliary construction ‘-ko sip-’

Kim, Cheon-hak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syntactic and semantic function of the Korean auxiliary construction ‘-ko sip-’. The ‘-ko sip-’ construction is an auxiliary construction because a nominative or accusative particle cannot be inserted between ‘-ko’ and ‘sip-’. While the ‘-ko sip-’ construction can be classified as an auxiliary in Korean, ‘want’ and ‘hope’ can be classified by an unusual complement clause that does not have a noun phrase equivalent in English. When the verb ‘boda’, meaning ‘see’, precedes the ‘-ko sip-’ construction, the particle of the second argument of the sentence can change from ‘ul/lul’ to ‘i/ka’. The particle ‘i/ka’, if used in the second argument, loses its subjectivity and can be interpreted to represent a neutralized description. It can then be proved that the second argument cannot be a syntactic pivot in the sentence. If the second argument of the particle ‘i/ka’ uses a relative construction, it can be interpreted with dual meanings, because the actor and the undergoer are expressed by the same form of the particle ‘i/ka’. In this case the undergoer in this construction can be interpreted with multiple meanings, not only in relation to the actor but also in relation to the speaker.

※ key-words: ‘-ko sip-’, auxiliary adjective, actor, undergoer, complementation strategy, neutralized description